

보도시점 2025. 11. 5.(수) 10:00 (2025. 11. 5.(수) 석간)

해외취업의 숨은 조력자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만나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5년 해외취업지원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해외취업연수사업 및 일경험지원사업 참여기관 우수사례 선발 후 전파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5일(수)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2025년 해외취업지원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해외취업연수사업(해외진출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 어학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과 해외일경험지원사업(해외 일경험과 진로탐색을 위한 학습기회를 제공)의 운영기관들이 참여한다.

행사는 △해외취업지원사업 부문별* 우수사례 발표 △심사 및 시상 순으로 진행되며, 발표를 참관하는 기관들이 타 기관의 장점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구직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 총 3개 부문으로 구성(연수사업-학교, 연수사업-민간기관, 일경험사업)

특히 올해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인 Fast-Track**, 해외진출기업 맞춤형 연수과정***을 새롭게 운영하여 더욱 다양한 우수사례가 선정,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Fast-Track) 일정 수준의 어학 또는 직무역량을 보유한 청년에게 초단기 교육을 제공하여 빠른 해외진출 지원

*** (해외진출기업 맞춤형 연수과정) LG에너지솔루션, SK AX USA 등 대한민국 기업의 국외 현지법인이 필요로 하는 청년 인재를 양성하여 기업에 연결 및 지원

총 27개 기관이 우수사례를 제출했고,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12개 기관이 발표에 참여한다. 부문별로 대상(장관상), 최우수상 및 우수상(이사장상)을 각각 수여한다.

지난해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연수사업 민간기업 부문’ 대상을 받은 (주)리얼스톤은 ‘연수과정을 하나의 회사로 시스템화하여 운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연수생들을 ‘회사원’이라 가정하고, 각자의 취업 희망직종과 관련된 부서를 구성하여 모든 교육을 업무로 받아들이도록 운영한 것이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수생들의 부족한 사회 경험을 보완하고, 기본적인 업무 역량을 습득하도록 해, 취업 후에도 탁월한 근무 태도를 인정받게 했다.

우수사례 청취를 위해 참석한 연수기관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과정의 운영 비법을 접목해 연수생 취업률을 높일 돌파구를 모색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이번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다양한 우수사례가 공유되길 기대한다. 공단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청년들의 글로벌 진출을 가장 앞장서서 지원하겠다.”라며, “또한 구인 기업 검증, 캠페인 실시 등 안전한 취업을 위한 예방 조치와 해외 취업자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연수부	책임자	부장	김성훈 (052-714-8611)
		담당자	과장	최초이 (052-714-8616)



□ 개최 목적

- 해외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대상 우수사례 발굴과 공유를 통해 기관별 경쟁력을 높이고 능동적인 사업 운영을 확산

□ 행사 개요

- (행사명) 2025년 해외취업지원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 (일 정) '25. 11. 5.(수), 10:00~17:00
- (장 소) 노보텔 앰버서더 서울 강남(서울시 강남구) 2층 샴페인홀
- (규 모) 해외취업연수사업 및 해외취업일경험사업 67개 기관 참여

□ 행사 구성

구분	주요내용	비고
우수사례 발표	연수-학교, 연수-민간, 일경험 순으로 진행	부문별 각 4개 기관 총 12개 기관 발표
심사 및 시상	부문별 대상(장관상), 최우수상 및 우수상(이사장상) 수여	부문별 각 3점 총 9점 포상